



##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 사례 소개

나는 이래서 농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충북제천 소희농장 신재덕 사장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부농의 꿈을 안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빛을 얻어 농장규모를 늘리고 계속 투자할 때는 그들의 앞날은 장미빛 미래만이 보여지는 듯 했으나 현실은 그들의 희망을 무참히도 짓밟아 버렸으며, 많은 양돈농가들은 허탈감에 빠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양돈인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양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국내 양돈산업의 어두운 앞날을 보게되는 것 같아 실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돼지값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어느 회원 농가는 돼지 30두를 출하하였는데 29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1두당 체중이 평균 87kg이라고 해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아주 헐값에 등급이 매겨진 이유다. 이 회원 농가도 알면서 할 수 없이 출하를 하였으리라 생각하니 정말 앞날이 무척 암담하게만 받아들여졌다 보다.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가 98년 6월 현재 740만두를 훨씬 넘는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돼지고기 소비도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돼지 사육두수를 보고 있노라면 내년도의 돼지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돼지가격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내연에도 돼지고기 값이 폭락된다면 아마도 수많은 양돈농가가 주저 앉고 말 것이다. 돼지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

막연히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양돈산업은 공멸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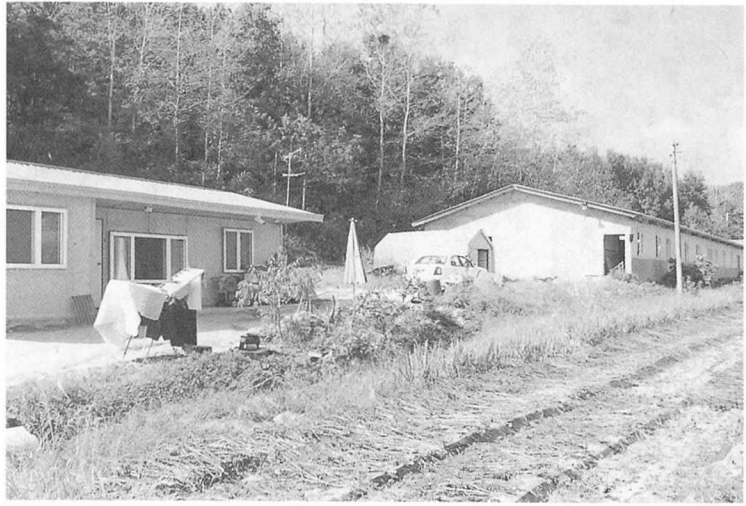
- 취재 : 이병석 -

## 자신의 농장을 한 번 열심히 할 작정으로 양돈업에 뛰어든 신재덕 사장

여기 한 농장의 실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2리에서 양돈장을 경영했던 신재덕씨는 현재 36세의 나이로 부인과 아들·딸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신재덕씨는 지난 97년 6월 중순경 이곳에 터를 잡고 자신의 농장을 한 번 열심히 할 작정으로 양돈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7년여동안 경기도 여주, 이천, 안성 등지에서 남의 농장 책임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저축하여 짧은 기간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여느 사람들 처럼 양돈에 관한 상당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또한 순수 돼지관리 뿐만 아니라 농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대기술(용접, 전기, 기계 등)도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

신재덕씨는 이렇게 농장생활을 해서 모은돈 1억원과 친인척들에게서 빌린돈 1천만원, 그리고 축협 담보대출 4천만원, 농협 신용대출 2천만원 등 총 1억 7천만원을 들여 지금의 터에 신규로 투자하게 되었다. 농장 부지는 950평이었으며, H빔으로 만들어진 181평의 돈사도 외형은 완성되어 있었던 것을 경매 직전 1억원에 인수하였기 때문



▲소희농장 전경(사장 : 신재덕)

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었다.

신재덕씨는 이렇게 인수한 돈사의 내부를 손수 3천여만원을 들여 시설하였으며, 관리사도 1,500여만원을 들여 예쁘게 지어놓았다. 신재덕씨가 인수할 당시는 97년 6월경이었으며, 4개월여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10월 말경에 모돈 95두를 충북 진천 소재 모 육종에서 4천만원을 들여 입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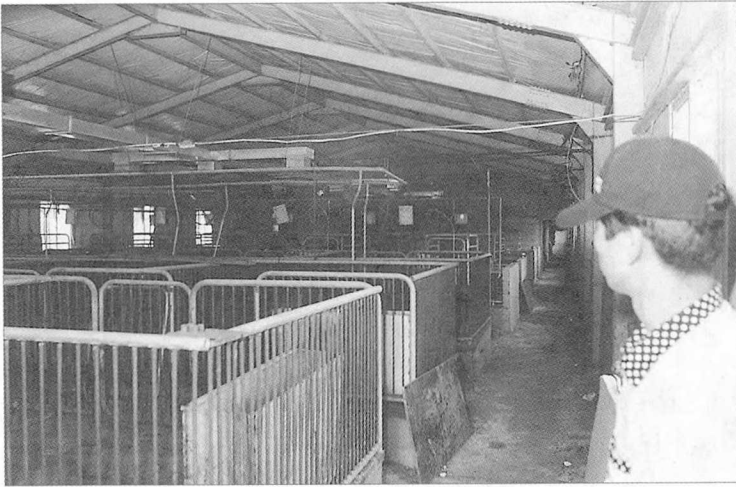
### 당초 계획과는 달리 IMF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농장을 정리하게 돼

신재덕씨는 1차로 자돈을 생산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고 2년 내에 수지 흑자를 본 후 비육은 2년 후에나 할 것을 계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육돈사는 처음 투자 계획에 넣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곧바로 예상에도 없던 IMF사태가 터졌으며, 사료값, 약품값 등이 폭등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처음 모돈사 내부를 시설할 때에는 자돈을 15kg까지만 키워서 출하할 것을 계획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키우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또한 자돈가격이 폭락하고, 자돈을 구입해 가기로 계약을 했던 농가들이 돼지를 가져가려 하지 않아 판로가 막히게 되자 신재덕씨는 이중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늘어난 가는 사료값에다가 자돈을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압박해 오자 신재덕씨는 결국 98년 6월 말경 모돈



▲신재덕 사장이 자신의 빈 돈사를 들여다 보고있다.

을 입식한지 8개월만에 자돈을 포함한 모든 돼지들을 처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당시 신재덕씨가 돼지 전체를 모두 판매해서 받은 돈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해 이 돈으로 밀린 사료값과 약품값 등을 갚았다고 한다. 결국 모든

입식비용, 내부시설 비용, 관리사 건축비용중에 농·축협에서 대출해온 6천만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친인척 등에게서 빌린 돈 등은 전혀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농·축협에서 얻은 자금은 연리 약

15%정도로 이자 상환도 몇 달 정도 지체된 상황이다.

신재덕씨는 이미 2억3천만원의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어떻게든 한 번 농장을 끌고 가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내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듣고는 아예 포기를 한 상태다.

신재덕씨는 현재 농장 부지와 함께 돈사, 관리사 등을 모두 1억원에 팔기 위해 내놓았다. 그는 이 돈으로 농·축협 여신과 친인척 등에게서 빌린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남의 농장으로 들어가 일하려고 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 열심히 해보았지만 어려운 국내 현실을 넘지 못해

신재덕씨는 농장을 직접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로이 신규 투자에 뛰어들지 1년여만에 부채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만을 겨안게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농장을 정리해야지만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울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은행 빚과 공허한 허탈감 뿐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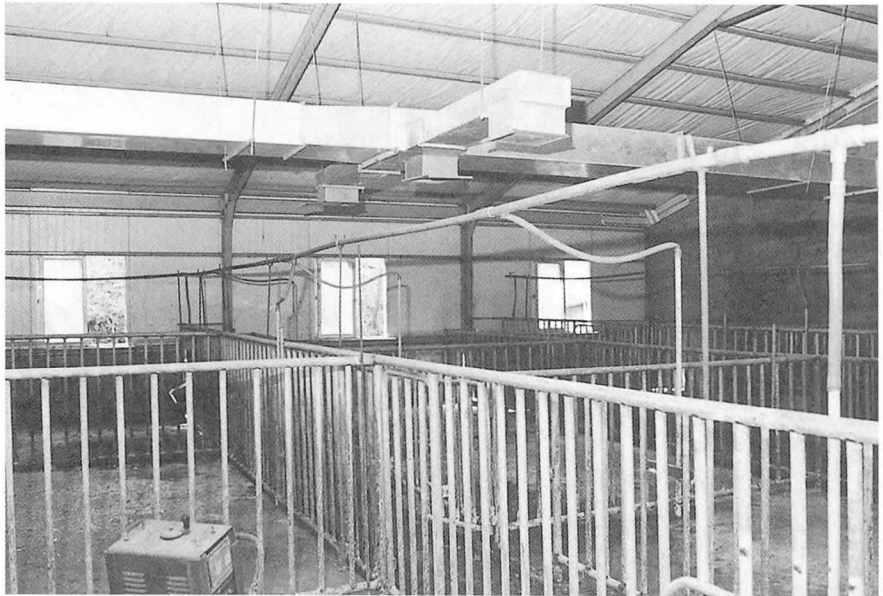
▲임신돈 스톨사 전경, 모든 현황판이 군데군데 붙어있다.

신재덕씨는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당시 초기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IMF사태도 한 몫을 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도 큰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뼈에 사무친 말을 한다. 어쨌든 신재덕씨는 이래서 농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신재덕씨는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당시 초기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IMF사태도 한 몫을 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도 큰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정말 필요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뼈에 사무친 말을 한다. 어쨌든 신재덕씨는 이래서 농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기자가 만나본 신재덕씨는 진정한 양돈인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



▲자돈방 전경, 환기가 잘되게끔 닥트를 설치하여 놓았었다.

했다고 말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을 꾸미는데 투자했다. 내부 시설을 보면 관리자가 한번이라도 더 돼지를 돌볼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배려를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만 았았다면 신재덕씨는 지금 열심히 돼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투기가 아닌 순수한 돼지사업가로써...! 아무쪼록 이러한 젊은 양돈인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양돈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나름대로 바라본다. **養豚**